#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수아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힘센 가나안 일곱 족속과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칼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통해 치르는 영적 전쟁임을 여호수아서는 잘 보여 줍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없으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_ 수 1장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 즉 '하늘나라로 인도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었던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신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자나 깨나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 앞에 회막을 치고 날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33:11).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만큼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된 자"이므로 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민 27:18-20).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수 1:5).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

엘의 지도자들에게 "너와 함께하리라."는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맥잡기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다는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사 41:10).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캄캄한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은 일관되게 "너는 내게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원소속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엡 1:4)로서 원래부터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나, 인류 조상의 원죄로 사탄에 속한 자로 살아오다가 아들을 영접함으로 원소속감을 회복합니다.

지식탐구 12

### 이슬람의 지하드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다른가

이슬람에서는 지하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신문 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기도 하는 이 말은 '거룩한 전쟁(聖戰)'을 뜻하는 이슬람어입니다. 원래 지하드는 이슬람 교도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이슬람교도와 싸우는 것을 뜻했으나, 요즘은 이슬람의 자살 테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이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전쟁'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400년 후에야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비합리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이웃을 없애 버리겠다고 하는 자살 테러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백성들의 화답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먼저 요단 강 동편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따르겠다면서 전에 약속한 대로 무장하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두 지파 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화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지도자의 말에 화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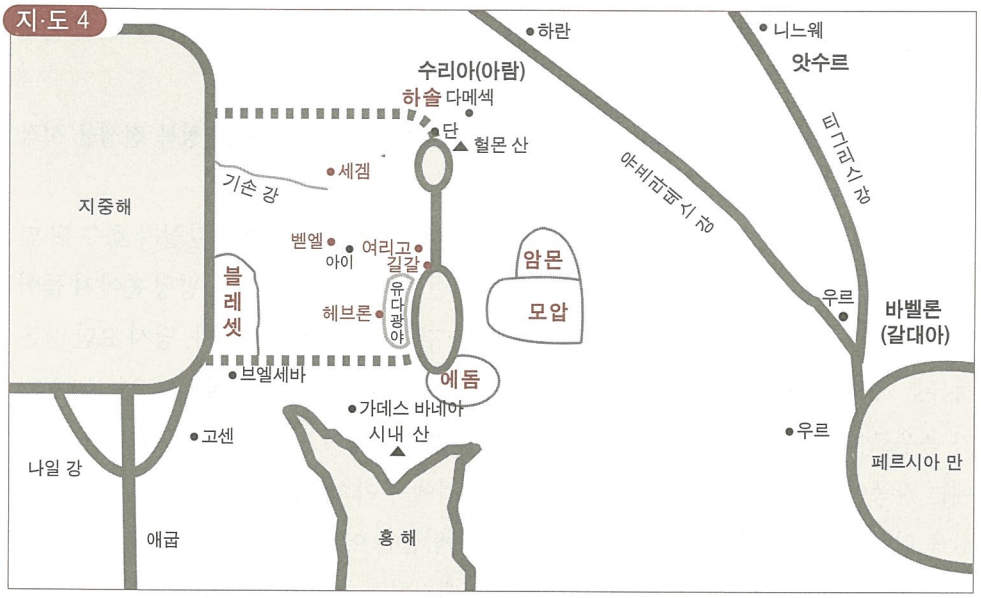
성도들이 지도자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수 17:8-16). 우리는 말로만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지도자는 늘 하나님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통하는 지도자와 막힌 담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정탐에 나섭니다.

##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 _ 수 2-6장

정복하려면 반드시 먼저 정탐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정탐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않고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기도하는 두 사람이면 정탐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겁을 먹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을 선동했던 기억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여리고 성으로 몰래 잠입해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과 모압 족속이 히브리 족속들한테 다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몰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를 눈치 챈 군사들이 쫓아오자 기생 라합은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있는 삼대 밑에 숨겨 주었습니다. 정탐꾼은 눈으로 합니다. 그런데 삼대 밑에 숨어 뭘 정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전처럼 눈으로 보고 겁먹지 않게 이들의 눈을 가리고, 대신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성 안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라합은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주막 같은 곳에서 일하던 여성일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




정복 시대 요단 강을 건너서 사해를 안에 끼고 있는 도시가 여리고 성입니다. 사해의 왼쪽 어깨를 쥐고 있는 곳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될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부연합군을 격퇴했던 아얄론 골짜기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옛날에 욥바 항구였던 텔아비브입니다.

께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의 믿음을 보고 "붉은 줄을 문에다 내리고 있으면 여리고 성을 전부 멸할 때 너희 집만은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수 2: 18-19 참조).

실제로 여리고 성이 정복당했을 때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그 집안 식구들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정탐꾼들은 왜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잡기 성경 학자들은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을 갔던 두 명 중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해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마 1:5).

## 요단 강을 건너다 _수3장

여리고를 정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요단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강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요단 강의 근원은 갈릴리 호수 뒤 만년설이 있는 헐몬 산입니다. 이 산의 눈이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로 펑펑 쏟아져 들어갔고, 갈릴리 호수는 하루에 65만 톤의 물을 요단 강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당시 요단 강은 하류로 가면 강폭이 약 800m쯤 되는 매우 큰 강이었습니다. 추수 절기 직전에 오는 늦은 비가 폭우로 바뀌면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강 옆에 있는 밀밭이 다 잠길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강폭이 1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장하게 요단 강을 건넌 것을 생각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사람들은 어지간히 실망을 합니다. 지금 요단 강은 한 발자국만 폴짝 뛰면 건널 수 있는 실개천처럼 물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 강으로 흐르던 물은 현재 땅속 배수관을 통해 네게브 사막 개발 용수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 대단한 요단 강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하나님은 홍해 때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기적의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 치며 찬양했지만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요단 강을 그냥 갈라 주시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의 작전 명령

요단 강에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준비할 것을 미리 일러 주고 믿음을 가지라는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르되 가까이 가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께 바로 나아갈 수 있으나, 구약의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따라가야 했습니다.

둘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요단 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영육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면 "사랑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흠없고 거룩하게"(엡 1:4) 서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고 하십니다.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즉시 하나님은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진멸해 주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 말씀으로 요단 강을 밟아라

몸을 성결케 한 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널 때와 다른 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전적으로 혼자 일하셨지만, 요단 강 앞에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솟구쳐 올랐다."고 했습니다. 요단 강이 홍해처럼 양편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솟구쳐 올라 거슬러 갔다는 것입니다. 낙차가 있는 강물, 약 300km나 되는 길을 구불구불 힘차게 흘러내리던 강물을 막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법궤(말씀)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셋째 날에 말씀으로 물과 육지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들만이 요단 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길갈에서의 예배 _수 4-5장

요단 강을 건넌 다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크고 오래된 여리고 성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축복의 기둥을 쌓았습니다. 적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또 할례를 행했습니다. 군사 작전상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앞에 큰 성이 있고, 그 성에서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장정들이 할례를 받고 전부 드러누워 있으면 어떡합니까? 적진 앞에서 나를 잡아가 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할례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고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서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을 치릅니다. '넘어가다(pass over)'라는 뜻의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냈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 산에서 훈련받고 가네스 바네아로 떠날 때 유월절 의식을 치른 뒤로 40년 동안에는 유월절 의식을 한 번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배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 드리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 여호와의 군대 장관 출현 _ 수 5:13-15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을 때 여리고 성에서 장수가 길갈 쪽을 향해 걸어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제 막 왔노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정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것뿐입니다. 울고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막' 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항오를 정비했습니다. 군대의 제일 앞에 누가 섰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섰습니다. 그 뒤에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에서 차출된 무장한 5천 명, 그 뒤에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가진 제사장 일곱 명, 그 뒤에 법궤를 멘 제사장이 섭니다. 그 뒤에는 호위군이 섰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백성들이 섰습니다. 맥잡기 당시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천사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찬송가 389장의 가사처럼 우리 대장 예수님이 기를 들고 제일 앞장서십니다.

여호수아는 항오를 정렬해서 가되 양각 나팔만 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수 6:10). 왜 그랬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한 일은 수군수군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말이야,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 같아. 아낙 자손의 칼에 죽게 하려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끌고 왔잖아." 불평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오직 일곱 개의 양각 나팔만 뚜뚜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일곱 번 돈 후에 함성을 지르자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공명'과 '지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

지식탐구 13

### 공명의 위력, 지진으로 무너졌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겠습니까? 발굴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창조 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공명'과 '지진'에 의해 무너졌다고 합니다.

첫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원인은 '공명'입니다. '공명'의 위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1940년 11월 7일에 미국 워싱턴의 타코마 해협에 놓인 다리가 무너진 것이 그 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격찬받았던 타코마 다리는 미국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큼 시속 190k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신공법으로 건축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3개월 만에 그것도 산들바람이나 다름없는 시속 70km의 바람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타코마 다리가 무너진 원인을 밝혀내려고 당시 워싱턴 대학의 파퀴하슨 교수를 비롯,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공법 전문가들이 동원됐습니다. 조사해 보니 붕괴 원인은 강풍이 아니라 진동에 의한 공명이었습니다. 강철이나 콘크리트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체의 진동수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진폭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데, 이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물체라 해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타코마 다리는 현수교였던 만큼 바람이 불 때마다 약간의 진동이 생겼는데 이 진동이 다리 자체가 지니고 있던 진동수와 일치해서 맥없이 무너졌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공명 현상 때문에 무너진 다리는 현수교뿐만 아닙니다. 1831년 영국 캘버리 부대가 맨체스터 근교 브로스턴 교를 행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부대원의 행진 박자가 다리 고유의 진동수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여성 성악가의 소프라노 목소리가 크리스털 컵을 깨는 것도 이런 원리라고 합니다.

둘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원인은 '지진' 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미 요단 계곡이 거대한 단층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여리고 성 근처의 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2개의 판구조 사이에 끼여 있는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발굴 팀은 당시 지금의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서 여리고 성이 붕괴됐음을 보여 주는 지질 구조를 발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원전 1446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남자 성인만 60만 3,550명(민 1:46)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쯤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리고 성 전투에 투입된 이스라엘 전사들은 대략 100만여 명일 것입니다. 그 많은 전사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의 지반은 반복적인 공명 현상 때문에 서서히 약해졌을 것입니다. 7일째 되던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수 6:16)고 할 때 진동이 극에 달해 마침내 지반이 갈라지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전문가와 창조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해 주신 방법은 백성들이 쥐 죽은 듯이 소리 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벽 돌기'를 하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 예배의 능력 때문이었다

어쨌든 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 군대는 칼을 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싸움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영은 누가 주관합니까?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이 말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수 2:9).

이것은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입에 넣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마음이 푹 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속마음을 꽉 쥐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녹았고 결국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감히 나와서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 주위를 빙빙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일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습니다. 성이 함락된 것은 예배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영성탐구 13

# 소속감

영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영은 사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에젤(Ezer)' 로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나의 영은 나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만' 사랑하게 되면 나의 영은 사탄의 영, 세상의 영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바탕에서 이웃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인 사탄은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결국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필요만 채우면 됩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고독에 빠집니다. 세상의 영은 고독의 영입니다. 낙엽을 밟으며 고독을 씹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독한 곳이 지옥입니다. 이웃이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담기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충만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독선주의자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은사자들 가운데 독선주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행할 때 종으로서 섬긴다고 생각하면 천사의 사역이 되고, 사탄이 들어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독선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독선주의에 빠진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거역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의 권면도, 말씀의 권면도 무시합니다.

권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를 하다 보니 이웃과의 소속감이 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 나라에 떨어져 있어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과의 소속감이 깨지면서 배신감과 적대감 속에 "나밖에 없다."는 사탄의 생각에 빠질 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부부 사이, 친구나 동

업자 사이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이웃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속감은 예수 안에 속할 때만 갖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진정한 소속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요, 오감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며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영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우리가 모든 분냄과 악독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직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엡 4:31-32).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소속감이 깨어질 때 배신감 속에서 화를 터뜨리다가 결국 고독 속으로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담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